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의 구조적 관계*

길 영 란 박 미 란 이 지 연¹⁾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내, 외적 변인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취약성-스트레스-적응모형(VSA)을 기본으로 스트레스-대처이론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초기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변인인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60대 기혼 남녀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부적응도식은 일상의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책임귀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서조절, 결혼만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조절은 결혼만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책임귀인은 회피대처행동과 정적 상관을, 정서조절과 결혼만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일상의 스트레스가 초기부적응도식을 일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두 변인이 서로 영향을 미쳐 대처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종 모형에서 나타난 이들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초기부적응도식이 적응과정 변인인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을 거쳐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크기는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응과정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상담개입의 치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기부적응도식, 일상의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mail: selfobject@naver.com)

I. 서 론

2015년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30만3천 건, 이혼건수는 10만 9천 건(쌍)이었고, 이혼율은 OECD 12위이었다(통계청, 2016). 다수의 연구 결과 결혼생활 불만족이 이혼의 가장 큰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Bjorksten & Stewart, 1984; Gottman & Levenson, 2000). 지금까지의 결혼만족 연구는 행동, 인지 및 성격 변인들의 단일 차원의 영향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들 변인간의 정교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연구결과들이 비일관성을 보였다(Bradbury & Karney, 1993). 따라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변인들과 이들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의 모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성-스트레스-적응(vulnerability-stress-adaptation: VSA) 모형이 제안되었다(Karney & Bradbury, 1996). 이 모형은 결혼생활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내적, 대인간, 외적 변인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취약성-스트레스-적응모형을 사용하여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이 지지되었다(김시연, 서영석, 2008; 전영민, 2000). 한편 Lazarus와 Folkman(1984a)은 인지현상학적 스트레스-대처이론 모형을 만들었으며, 스트레스와 개인의 적응 간 매개변인으로 개인의 대처행동을 제안하였다. 결혼발달과정을 이해하려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요인과 스트레스요인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부적응도식과 같이 결혼할 당시 지니고 있는 영속적

인 개인의 취약성 요인은 부부가 경험하는 일상의 스트레스 사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Karney & Bradbury, 1996).

본 연구는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내, 외적 변인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취약성-스트레스-적응모형(VSA)을 기본으로 스트레스-대처이론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외적 변인으로서는 일상의 스트레스, 개인내적 변인으로 초기부적응도식, 그리고 결혼적응과정 변인, 즉 매개변인으로 회피대처 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 변인들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함시켰다. 또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영속적 취약성 요인인 초기부적응도식의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인지·행동·정서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세 가지 적응과정 변인들이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알아본 것이 의의가 있다.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도식인 초기부적응도식은 영속성 취약성 변인으로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으로 생애초기에 형성되어 일생동안 정교화-지속된다(Young & Brown, 1990; Young, Klosko, & Weishaar, 2003). 경험적 연구들은 초기부적응도식이 결혼을 비롯한 여러 관계만족 및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김시연, 서영석, 2008; 김은정, 2009; 이지혜, 2009; 장춘미, 2009; 전영민, 2000; Almeida & Kessler, 1998; Cohan & Bradbury, 1997; Freeman, 1998; Nemati, 1996; Stiles, 2004), 남편과 아내 모두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Freeman, 1998). 이와 같은 인지적 차원의 초

기부적응도식이 결혼적응 과정을 통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변인을 일상의 스트레스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중대한 사건의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이 결혼만족을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이 높았기 때문이다(김시연, 서영석, 2008; 장춘미, 2009; 전영민, 2000; Coyne & Downey, 1991; Crnic & Greenberg, 1990; 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또한 개인의 수용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적외적요구를 다루려는 인지적, 행동적인 노력인 대처(coping)는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기제로 최근 대처가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기제임이 밝혀졌다(김은정, 2009; Lazarus & Folkman, 1984a; Moos & Schaefer, 1993). 초기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 간의 적응과정의 맥락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를 포함하는 적극적 대처보다는 정서적 대처를 포함하는 회피적 대처행동이 더 심한 심리적 증후와 연결된다(Compas, Malcarne, & Fondacaro, 1998; Moos & Holahan,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간의 적응과정 변인으로 회피대처행동을 선정하였다. 정서조절이란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한 반사적인 반응이며, 정서가 억압되거나 자극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Gross & Levenson, 1997; Thomson, 1990). 연구결과, 정서조절은 개인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행동적 유능감 및 개인 간 상호작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alovey & Mayer, 1990; Thompson, 1994), 정서조절이 심리적 부적응, 정신병리와 중요

한 관련이 있었다(Bonanno, 2001; Eisenberg et al., 2001; Taylor, Bagby, & Parker, 1991). 또한 행복한 결혼생활의 예측요인은 갈등의 해결이 아닌 갈등의 조정이며, 성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게도 대부분의 결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하였다. 갈등상황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부부의 친밀감이 형성되며, 정서조절 능력이 결혼만족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Kahn, 1990), 아내의 경우 자신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받는 것만큼 남편의 정서조절에도 영향을 받았다(김은정, 2009). 이 연구(Tashiro & Frazier, 2007)에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파트너에게 책임을 돌리고 요구·회피패턴 행동이나 다른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정서조절은 결혼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혼만족의 중요한 매개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정미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을 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간의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책임귀인은 사건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며(Bradbury & Fincham, 1990), 관계적 맥락의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적합하다(이경성, 한덕웅, 2003; Fincham & Bradbury, 1992).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 행동에 대한 책임귀인은 결혼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유지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수진, 1997; 우성범, 정미나, 성낙운, 강충명, 양은주, 2009; Fincham & Bradbury, 199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 사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책임귀인을 매개변

인으로 사용하였다. 결혼 적응과정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초기부적응도식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함께 활성화될수록 회피대처행동을 선택하면서 정서조절력이 낮아지고, 정서조절에 실패하면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더 왜곡해서 지각하거나 과묵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제를 객관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면서 배우자 책임귀인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책임귀인을 함으로써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초기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 간의 적응과정의 맥락에서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변인이 대처 행동(이성진, 조용래, 2009; Lazarus & Folkman 1984b; Racine, 2004)이며, 정서가 상호작용 패턴과 지각 및 의도를 귀인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Gurman & Fraenkel, 2002). 또한 부적응적 책임귀인은 부부간의 효과적인 문제해결행동을 방해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adbury & Fincham, 1987).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Karney와 Bradbury (1996)에 의해 부부를 대상으로 설계된 취약성-스트레스-적응(vulnerability-stress-adaptation)모형을 기초로 스트레스-대처이론을 통합하여 초기부적응도식, 일상의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을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취약성-스트레스-적응모형을 사용한 전영민(2000)의 연구는 스트레스에서 적응과정, 적응과정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일방향의 모형이 더 양호한 적합도

를 보였다. 반면 김시연과 서영석(2008)의 취약성-스트레스-적응 모형을 사용한 결혼관련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통합모형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과 스트레스가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변인이 결혼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이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적합한지를 검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만족의 변인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담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상담의 치료적 개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 제시한 연구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결혼만족 모형을 제안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정하고 있는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일상의 스트레스와 초기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을 적응과정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는 경쟁모형 평가를 채택하였다(Kline, 2005).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과정에서 일상의 스트레스가 초기부적응도식에 영향을 주고, 초기부적응도식은 결혼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개변수인 책임귀인, 정서조절, 회피대처행동의 순서를 통하여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특히, 초기부적응도식이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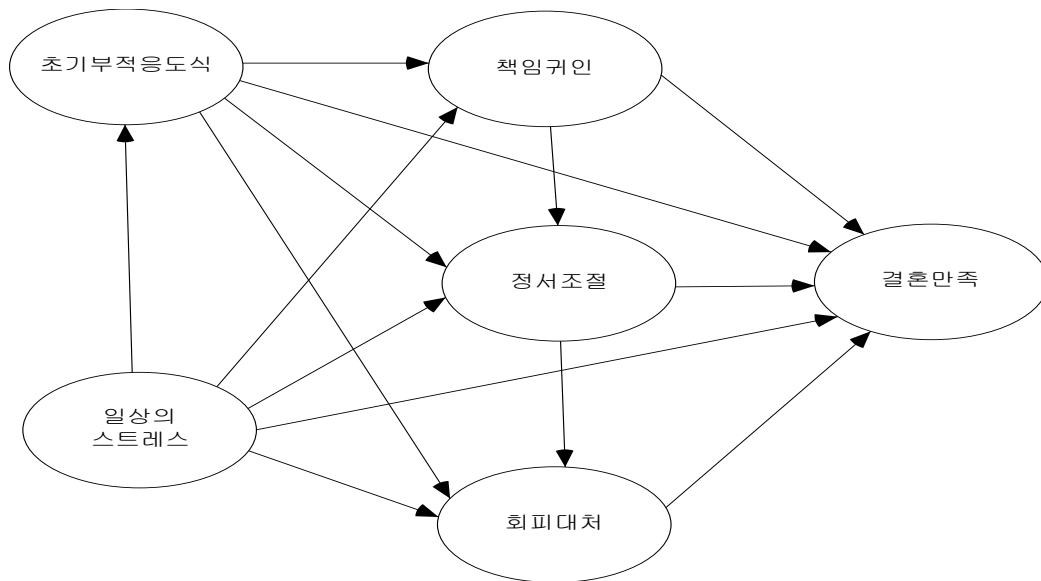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초기부적응도식, 일상의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과 결혼만족의 관계 통합모형

의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활성화 될 때,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적응과정변인으로 책임귀인-정서조절-회피대처의 순서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의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초기부적응도식이 활성화 될 때 직접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적응과정에서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누적된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로 인해 자동반응적으로 배우자귀인인 책임귀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책임귀인양식과 행동간의 연합은 결혼의 맥락모델과 연결된다 (Bradbury, Beach, Fincham & Nelson, 1996; Miller & Bradbury, 1995), 즉, 배우자 (자극)행동의 처리과정이 자신이 경험한 순간적인 사고와 감정, 성격이나 만성적인 기분상태 같은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

적응적 상태에서 정서조절이 안될 때, 회피대처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회피대처행동은 배우자의 결혼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경쟁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과 스트레스가 서로 영향을 주며, 각각 종속변수인 결혼만족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리고 매개변수들인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순서로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즉, 연구모형과 달리, 초기부적응도식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으로 설정하고, 매개변인 중 회피대처행동이 정서조절과 책임귀인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적응과정변인으로 책임귀인-정서조절-회피대처행동의 순서로 설정한 경쟁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부적응도식과 일상의 스트레스가 서로 영향을 주어, 초기부적응도식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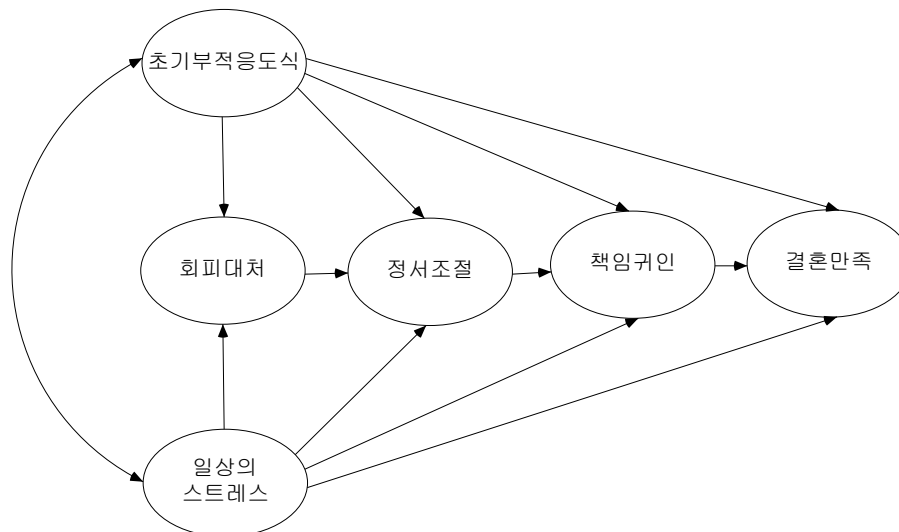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초기부적응도식, 일상의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과 결혼만족의 관계 통합모형

되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 스트레스-대처로 이어져 부적응적인 회피대처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Lazarus & Folkman, 1984a), 이러한 회피행동은 정서조절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정서조절 과정이 불쾌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하는 반면, 오히려 불쾌한 정서를 축적 및 악화시키기도 하여 여러 정신과적 정신 병리로 발전시키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들(이지영, 권석만, 2006; Gross & John, 2003)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로 인해 정서조절에 실패하고 현상을 왜곡하여 지각하게 되어 배우자를 탓하게 되고 이는 배우자책임귀인으로 이어져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초기부적응도식, 일상의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과 결혼만족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수도권, 지방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20-60대 남녀 기혼자 66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300명(44.8%), 여성은 369명(55.2%)이었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571명(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30-40대가 527명(78.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수입은 300만원 미만 168명(25.1%), 300-500만원 사이가 246명(36.8%), 500

만 원 이상이 250명(37.5%), 무응답 5명(.6%)으로 나타났다. 결혼경력은 10년 미만이 245명(36.6%), 10-20년 미만이 225명(33.6%), 20년 이상이 199명(29.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Young의 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YSQ-SF)

본 연구에서는 Young(1994)의 단축형 도식 질문지(YSQ-S)를 Baranoff, Oei, Cho, & Kwon, (2006)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한국인 대학생 833명을 대상으로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검증한 YSQ-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영역 1의 단절 및 거절 도식, 영역 2의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도식, 영역 3의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4의 타인-중심성 도식, 영역 5의 과잉경계 및 억제 도식의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여러 심리적 증상과 관련성이 높은 제 1영역의 단절 및 거절 영역에 해당하는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 결핍, 결합/수치심과 제 2영역의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의 실패와 의존/무능감, 제 5영역의 과잉경계 및 억제 도식의 정서적 억제 요인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6점 Likert형식의 '전혀 동의안함'의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의 6점으로 문항을 평정하는데 총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초기부적응도식이 더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절 및 거절도식에 포함되는 문항내용은 '나를 보살펴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 결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지 못 한다' 등이다. Baranoff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가 .94로 보고되었고, 하위요인은 .72~.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84~.90으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일상의 스트레스 척도(The Hassles Scale)

일상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DeLongis, Coyne, Dakof, Folkman과 Lazarus(1982)가 개발한 The Hassles Scale-Revised version 척도의 45문항을 김정희(1995)가 36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참고하여, 이현희(2002)가 원칙도에서 빠진 문항을 보완하여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전적으로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상의 스트레스 척도에 사용된 문항의 내용은 최근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로 걱정이 되었는지 일상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나 직장동료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비(음식, 옷, 주거비, 의료비, 세금 등)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다. 이현희(2002)가 번안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2 였으며 이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95 이었다.

책임귀인 질문지(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RAM)

Fincham과 Bradbury(1992)와 안수진(1997)에 의해 번안된 관계귀인 질문지(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RAM)중에서 책임귀인 양식만을 사용하였다. RAM 원칙도는 친밀한 관계의 귀인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역동적인 척도(The Dynamic Attribution Inventory: DAI, Baucom, Sayers & Duhe, 1989)와 부부 귀인양식 질문지(Marital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MASQ, Fincham, Beach, & Nelson, 1987)를 Fincham과 Bradbury(1992)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인과귀인 3차원과 책임귀인 3차원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책임귀인 양식만을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사건 2개, 부정적인 사건 8개를 포함, 총 10문항에 대해 책임귀인 의도성, 이기적인 동기, 비난성을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세 차원 30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을 귀인점수로 사용하였다. 긍정적사건 2개의 비난성 차원은 역으로 채점하여 총점이 클수록(상대)배우자의 행동을 더 의도적이며 이기적이며 비난받을 만하다고 부적응적 귀인을 하는 것이다.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80점이며, 책임귀인 척도에 포함되는 문항 내용은 '내 아내(남편)가 의도적으로 나를 비난한다. 내 아내(남편)의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내 아내(남편)의 그런 행동은 비난 받을만하다.' 등이다. 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의도성 .87, 이기적인 동기 .92, 비난성 .82로 양호하였으며, 전체 30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개발

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총 문항은 36 문항이었다. 원칙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긍정적, 부정적의 2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긍정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으로는 조망확대,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의 5가지 하위요인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4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부정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의 5점의 Likert식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이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문항을 역으로 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본다. 문항의 내용은 '그 일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알고 싶다' 등이다.

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자기비난 .78, 타인비난 .82, 반추, 76, 파국화 .80으로 나타났고, 전체 .89 이었다.

대처행동 척도(Coping Style Indicator: CSI)

Amirkhan(1990)이 개발하고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Coping Style Indicator: C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사회적 지지추구(social support seeking), 문제해결중심 대처(problem solving), 그리고 회피중심 대처(avoidance)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요인 중

회피중심 대처 요인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총점은 11점에서 55점 사이로, 총점이 높을수록 회피대처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항내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문제를 외면하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78 이었다.

결혼만족도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적응수준 및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piner(1979)가 만든 Dyadic Adjustment Scale(DAS)의 우리말 번역판인 '부부적응 척도'(이민식, 김중술, 1996)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부부 적응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첫째,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부부간의 의견일치도(dyadic consensus). 둘째, 관계에 대한 만족(dyadic satisfaction: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셋째, 부부가 어떤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집력(dyadic cohesion). 넷째, 애정표현과 성생활의 만족에 대한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부부 적응을 측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생활 만족질문 2문항을 제거하고 애정표현에 대한 만족도 질문의 수정을 거쳐 총 2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부부간의 일치 정도를 항상 불일치 (0점)에서 항상 일치(5점)의 6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의견일치

.92, 관계만족 .78, 응집력 .89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4 로 나타났다.

문항 꾸러미 제작

일상의 스트레스와 회피대처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 &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세 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회피대처 잠재변인에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의 절대 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일상적 스트레스는 15, 15, 14개, 회피대처 11문항은 4, 4, 3개로 나뉘 세 개 꾸러미들의 요인 부하량의 합이 비슷하도록 하였다. 이는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잠재변인에 대한 꾸러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꾸러미가 해당 잠재변인을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Russel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분석방법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이 때,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Finch, & West, 1997).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뿐 아니라 CFI(.90보다 클 때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 TLI(.90보다 클 때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 RMSEA(.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를 살펴 보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마지막

으로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매개효과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초기부적응도식,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도이다. 표 1에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

III. 결과 및 해석

표 1. 측정 변인의 기술 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제시

(N = 669)

잠재변인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초기 부적응 도식	정서적 결핍	1.93	.93	1.15	.98	
	유기/불안정	1.99	.88	.83	.22	
	단절 및 거절	불신/학대	2.09	.94	.79	.25
		수치심	1.75	.77	1.22	1.58
	전체	1.94	.74	.86	.77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실패	2.12	.91	.65	-.15
		의존/무능감	2.08	.91	.80	.28
	전체	2.10	.85	.61	-.14	
	과잉경계 및 억제	정서적 억제	2.12	.93	.72	-0.0
	전체	2.01	.72	.67	.37	
스트레스		2.39	.72	.26	-.56	
책임귀인	의도성	2.24	.87	.61	.06	
	이기적인동기	2.19	.98	.65	-.21	
	비난성	2.47	.88	.48	.06	
	전체	2.30	.85	.64	-.05	
정서조절	자기비난	3.23	.84	-.05	-.14	
	타인비난	3.72	.74	.01	-.54	
	반추	3.30	.83	-.01	-.51	
	파국화	3.84	.86	-.34	-.64	
	전체	3.52	.64	.19	-.32	
회피대처		2.72	.61	-.31	.02	
결혼만족	의견일치	3.42	.71	-.94	1.58	
	관계만족	3.53	.72	-.74	.63	
	응집력	3.04	1.09	-.13	-.30	
	애정표현	3.24	1.44	-.52	-.48	
	전체	3.31	.69	-.79	1.01	

주. 점수의 범위(첨도): 초기부적응도식(1-6), 스트레스(1-6), 책임귀인(1-6), 정서조절(1-5), 회피대처(1-5), 결혼만족(0-5)

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2.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측 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Marsh, Kit-Tai, & Wen, 2004),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해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행렬

(N = 66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67**	1																		
3	.75**	.72**	1																	
4	.94**	.86**	.86**	1																
5	.56**	.44**	.50**	.57**	1															
6	.49**	.38**	.43**	.49**	.39**	1														
7	.46**	.37**	.42**	.47**	.41**	.87**	1													
8	.41**	.33**	.38**	.42**	.39**	.71**	.81**	1												
9	.48**	.39**	.44**	.49**	.43**	.92**	.96**	.90**	1											
10	-.19**	-.23**	-.21**	-.21**	-.14**	-.18**	-.16**	-.10**	-.16**	1										
11	-.32**	-.23**	-.31**	-.32**	-.22**	-.29**	-.30**	-.28**	-.31**	.18**	1									
12	-.33**	-.32**	-.30**	-.35**	-.28**	-.27**	-.27**	-.24**	-.28**	.57**	.47**	1								
13	-.48**	-.37**	-.41**	-.47**	-.38**	-.33**	-.32**	-.31**	-.34**	.41**	.55**	.69**	1							
14	-.43**	-.37**	-.39**	-.44**	-.33**	-.34**	-.34**	-.30**	-.35**	.70**	.68**	.88**	.85**	1						
15	.45**	.36**	.42**	.45**	.38**	.33**	.31**	.22**	.31**	-.22**	-.33**	-.31**	-.36**	-.39**	1					
16	-.32**	-.18**	-.21**	-.28**	-.30**	-.35**	-.40**	-.44**	-.43**	-.03	.04	.11**	.17**	.10**	-.10**	1				
17	-.32**	-.19**	-.22**	-.29**	-.29**	-.42**	-.46**	-.50**	-.49**	-.01	.12**	.16**	.22**	.16**	-.13**	.64**	1			
18	-.30**	-.26**	-.24**	-.30**	-.19**	-.37**	-.38**	-.39**	-.41**	-.01	.06	.12**	.12**	.09**	-.19**	.64**	.56**	1		
19	-.23**	-.14**	-.18**	-.21**	-.21**	-.29**	-.33**	-.32**	-.34**	-.06	.01	.09**	.13**	.06	-.16**	.57**	.52**	.71**	1	
20	-.35**	-.23**	-.24**	-.33**	-.31**	-.43**	-.47**	-.51**	-.50**	-.02	.07	.15**	.21**	.13**	-.15**	.93**	.82**	.80**	.71**	1

주. 1. 단절과 거절, 2.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3. 파잉경계 및 억제, 4. 초기부적응도식 전체, 5. 일 스트레스, 6. 의도성, 7. 이기적인 동기, 8. 비난성, 9. 책임귀인전체, 10. 자기비난, 11. 타인비난, 12. 반추, 13. 파국화, 14. 정서조절 전체, 15. 회피대처, 16. 의견일치, 17. 관계만족, 18. 응집력, 19. 애정표현, 20. 결혼만족 전체. * $p < .05$. ** $p < .01$.

본 결과, 1.05~1.45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구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요인분석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df = 237, N =$

669) = 1044.83, $p = .000$; CFI = .917, TLI = .895, RMSEA = .071(90% 신뢰구간 = .067 ~.076).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초기부적응도식이 .70~.85, 스트레스는 .82~.85, 회피대처는 .62~.78, 책임귀인은 .83~.98, 정서조절은 .54~.86, 결혼만족은 .73~.84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이론적 개념(잠재변수)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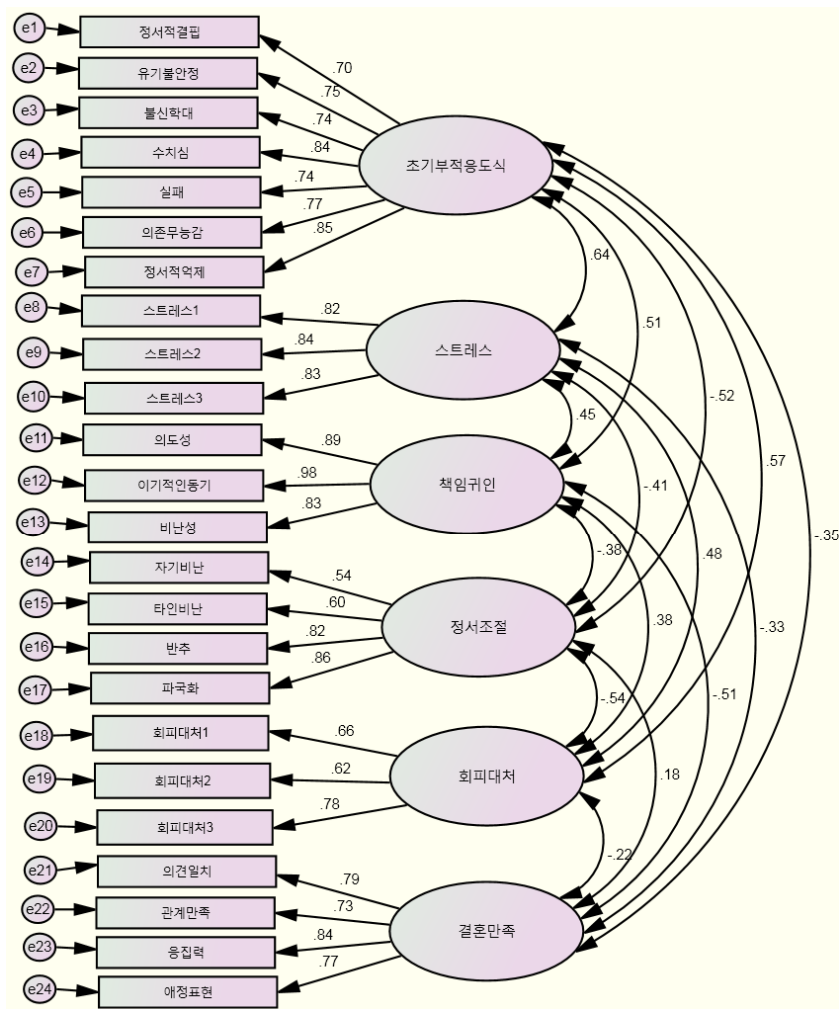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형의 모든 C.R값이 유의수준 .05 에서 1.96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모든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연구모형 하의 각 개념변수(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측정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가지며, 개념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 추정가능성이 확인되었다.

4. 구조 모형 검증

모형 비교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가 .895, CFI는 .917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는 .071로 보통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연구모형의 경로 가운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정서조절에 이르는 경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와 정서조절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 회피대처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 초기부적응도식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 5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한편, 경쟁모형은 TLI가 .896, CFI는 .917, RMSEA는 .071(90% 신뢰구간 .067-.075)을 보여 양호한 수준이었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정서조절로 가는 경로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 2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또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2.78$, $\Delta df = 2$, $p > .05$). 그러나 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지수 중 간명적합도 지수인 AIC는 모형이 각 추정계수에 필요한 적합도에 최대한 도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간명성이 우수한 모형임을 알려주는 지수(김계수, 2006)로, 본 결과에서 경쟁모형이 연구모형보다 더 낮은 AIC지수를 갖고 있어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최종 모형의 내생잠재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책임귀인이 일상의 스트레스, 초기부적응도식, 정서조절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30.3%, 정서조절이 초기부적응도식, 회피대처행동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36.5%, 회피대처가 초기부적응도식과 일상의 스트레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35.1%로, 결혼만족이 초기부적응도식, 책임귀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27.8%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구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Model	df	χ^2	$\Delta\chi^2$	TLI	CFI	RMSEA (90% CI)	AIC
모형 1 (연구모형)	238	1045.93	2.78 ($\Delta df=2$)	.895	.917	.071 (.067-.076)	1217.93
모형 2 (경쟁모형)	240	1048.71		.896	.917	.071 (.067-.075)	121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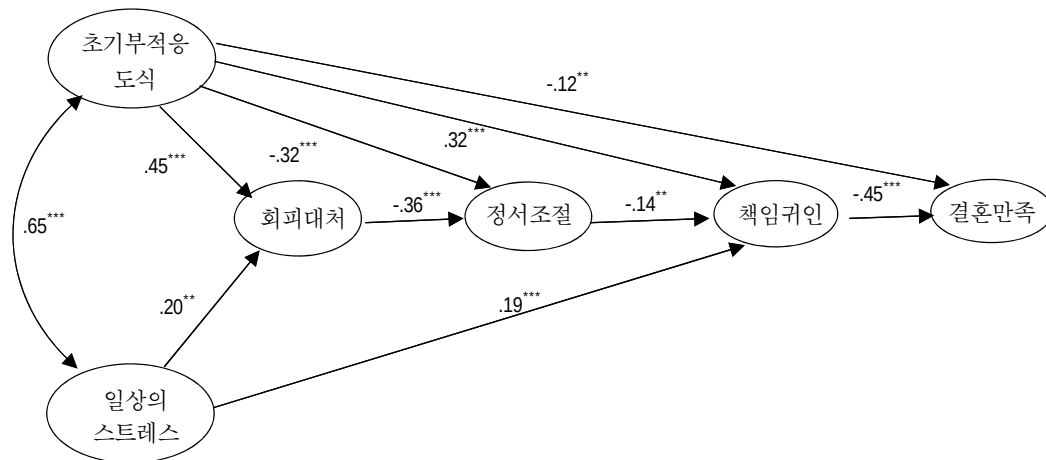


그림 4.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주. 구조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1$. *** $p < .001$.

표 4. 최종모형의 구조계수

최종모형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초기부적응도식	→	회피대처	.28	.04	.45***	7.03
초기부적응도식	→	정서조절	-.17	.03	-.32***	-5.69
초기부적응도식	→	책임귀인	.75	.13	.32***	5.67
초기부적응도식	→	결혼만족	-.31	.12	-.12**	-2.61
스트레스	→	회피대처	.04	.01	.20**	3.33
스트레스	→	책임귀인	.16	.04	.19***	3.68
회피대처	→	정서조절	-.31	.05	-.36***	-5.87
정서조절	→	책임귀인	-.62	.20	-.14**	-3.14
책임귀인	→	결혼만족	-.49	.05	-.45***	-9.63
R^2			책임귀인: .30, 정서조절: .37, 회피대처: .35, 결혼만족도: .28			

* $p < .05$. ** $p < .01$. *** $p < .001$.

체적인 결과는 그림 4, 표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모형으로 수정된 최종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Kline(1998)에 의하면 경로계수의 절대 값

크기가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를 나타내고, .10과 .30 사이면 중간효과를, .30과 .50 사이면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최종모형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부적응도식은

회피대처(.45), 책임귀인(.32)에 정적영향을 주고, 정서조절(-.32)과 결혼만족(-.12)에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부적응도식이 높은 사람은 회피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책임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정서조절력이 낮아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회피대처(.20)와 책임귀인(.19)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회피대처의 점수가 높아지고, 책임귀인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회피대처는 정서조절(-.36)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은 책임귀인(-.14)에 부적영향을 책임귀인은 결혼만족(-.45)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회피대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력은 낮아지며, 낮아진 정서조절력은 책임귀인의 증가를 불러와 결혼만족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분석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모형의 효과를 분해하고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모형의 효과분해

다음으로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이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각 변인들의 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부적응도식은 회피대처에 .45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고, 정서조

절에 -.32의 직접효과와 회피대처를 매개로 .16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은 책임귀인에 .32의 직접효과와 정서조절을 매개로 .05의 간접효과, 회피대처와 정서조절을 매개로 .02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초기부적응도식은 결혼만족에 -.12의 직접효과와 정서조절과 책임귀인을 매개로 .02의 간접효과, 책임귀인을 매개로 .01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볼 수 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회피대처에 .20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고, 회피대처를 매개로 정서조절에 -.07의 간접효과를, 책임귀인에 .19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고, 회피대처, 정서조절을 매개로 책임귀인에 .01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결혼만족에 책임귀인을 매개로 .09의 간접효과를,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을 매개로 -.01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회피대처는 정서조절에 -.36의 직접효과를 정서조절을 매개로 책임귀인에 .05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정서조절은 책임귀인에 -.14의 직접효과를, 책임귀인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06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책임귀인은 결혼만족에 -.45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매개효과 검증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Sobel 검증을 하였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개의 매개경로 중 초기부적응도식이 회피대처, 정서조절, 책임귀인을 경유하여 결혼만족으로 가는 매개효과($Z = .76, p > .05$)와 회피대처가 정서조절, 책임귀

표 5.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와 통계적 유의도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Z
초기 부적응 도식	→ 회피대처	.45***	.45***	-	
	→ 회피대처 → 정서조절	-.48***	-.32***	.16***	4.53
	→ 정서조절 → 책임귀인	.39***	.32***	.05**	2.76
	→ 회피대처 → 정서조절 → 책임귀인			.02**	3.24
	→ 정서조절 → 책임귀인 → 결혼만족			.02***	4.89
	→ 책임귀인 → 결혼만족	-.16**		.01**	3.39
	→ 회피대처 → 정서조절 → 책임귀인 → 결혼만족		-.12**	-.01	.76
스트레스	→ 회피대처	.20***	.20***	-	
	→ 회피대처 → 정서조절	-.07**	-	-.07**	2.94
	→ 회피대처 → 정서조절 → 책임귀인	.20***	.19***	.01*	2.19
	→ 책임귀인 → 결혼만족	.08***		.09***	3.45
	→ 회피대처 → 정서조절 → 책임귀인 → 결혼만족		-	-.01***	4.84
회피대처	→ 정서조절	-.36***	-.36***	-	
	→ 정서조절 → 책임귀인	.05**	-	.05**	2.96
	→ 정서조절 → 책임귀인 → 결혼만족	-.02	-	-.02	.93
정서조절	→ 책임귀인	-.14**	-.14**	-	
	→ 책임귀인 → 결혼만족	.06**	-	.06**	2.99
책임귀인	→ 결혼만족	-.45***	-.45***	-	

* $p < .05$. ** $p < .01$. *** $p < .001$.

인을 경유하여 결혼만족으로 가는 매개효과($Z = .93, p > .05$)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기부적응도식은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었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은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

을 주었다. 즉, 회피대처행동은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정서조절은 초기부적응도식과 책임귀인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회피대처행동, 책임귀인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일상의 스트레스는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피대처행동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회피

대처행동과 정서조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책임귀인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Karney와 Bradbury(1996)의 취약성-스트레스-적응(VSA)모형에 스트레스-대처이론과 정서를 포함시킨 통합모형을 근거로 하여, 부부의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개인내적 변인인 초기부적응도식이 개인외적 변인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적응과정 변인들인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상의 스트레스가 초기부적응도식을 일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두 변인이 서로 영향을 미쳐 대처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성-스트레스-적응 모형에서 개인의 취약성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특정 심리장애에 취약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Karney & Bradbury, 1996)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초기부적응도식과 일상의 스트레스는 책임귀인, 정서조절, 회피대처행동의 순서가 아닌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순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피대처행동을 많이 하며 둘 사이의 상관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김은정 2009; Esther, Susana, & Ana, 2007; Pierce & Lydon, 1998)과 부부사이에 누적된 부정정서가 많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바로 회피대처행동을 하게 된다

(Stevens, Charman & Blair, 2001)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회피대처행동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맥락에서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핵심변인이며(이경희, 이훈진, 2007; 이성진, 조용래, 2009; 최미경, 조용래, 2005; 한덕웅, 박준호, 2005; Aldwin & Revenson, 1987; Endler & Parker, 1990; Lazarus & Folkman, 1984a; Racine, 2004), 회피대처행동이 더 심한 심리적 징후와 연결된다는 선행연구들(송은주, 이지연, 2016; Compas et al, 1998; Moos & Holahan, 2003)과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동적인 회피대처행동이 초기부적응도식 및 일상의 스트레스와 결혼생활 불만족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적응적 연결고리가 된다는 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Christensen & Pasch, 1993). 한편 초기부적응도식과 일상의 스트레스는 서로 영향을 주고, 이어서 적응과정인 회피대처행동으로 인해 정서조절에 실패하면서 부적응적 정서를 유발하여, 책임귀인하게 되어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조절이 책임귀인에 영향을 미쳐 결혼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도 직접경로를 통해 책임귀인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정서가 상호작용 패턴과 지각 및 의도를 귀인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Gurman & Fraenkel, 2002)는 연구와 부적응적 책임귀인은 부부간의 효과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방해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Bradbury & Fincham, 1987)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커플

의 부적응적 인지와 행동에 감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중재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는 상대방 책임귀인을 하거나 요구-회피행동을 증가시키며, 긍정적 감정은 상대방 책임귀인이나 요구-회피행동을 감소시킨다(Tashiro & Frazier, 2007)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결혼적응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상태의 부부는 긍정적 상태의 부부들보다 더욱 그들의 파트너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가 적응과정 매개변인 중 책임귀인에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과 일상의 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적응과정을 통하여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시연, 서영석, 2008; 장춘미, 2009; 전영민, 2000; Cohan & Bradbury, 1997)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의 주요관심인 직,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초기부적응도식은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주기도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적응과정 변인들인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을 거쳐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간접매개효과도 나타났다.

반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결혼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단지 적응과정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서 결혼생활 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장춘미, 2009; 전영민, 2000).

또한, 최종 모형에서 나타난 이들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초기부적응도식이 세 적응과정 변인들을 거쳐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크기는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더 컸다. 이는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세 적응과정 매개변인들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세 적응과정 변인을 거친 간접효과는 초기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약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즉, 결혼생활의 만족에는 외적 요소인 일상의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커플 각각이 지닌 초기부적응도식의 영향이 더 크며, 무엇보다 적응과정변인인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매개효과의 영향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장점과 이론적, 실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성-스트레스-적응 모형과 스트레스-대처이론을 통합한 스트레스-대처-적응통합 모형에 이전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제안된 변인들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동시에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영속적 취약성 요인인 초기부적응도식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의 인지·행동·정서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세 가지 적응과정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스트레스와 초기부적응이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결혼만족과 관련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더 적용하지 못하

였다는 점이다. 둘째, 부부의 연령이나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결혼관련 종단연구를 분석한 결과, 결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안정되기는 하지만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arney & Bradbury, 1996). 이처럼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부부 발달단계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할 것이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부부발달단계에 따라 결혼만족 모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모형의 적합성을 탐색해보는 연구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대상이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었으며,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의 안정성 여부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만족과 직업을 가진 주부의 부부만족에 본 연구의 결혼모형을 적용하여 두 집단 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과 교육수준에 걸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6).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4.
- 김은정 (2009).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은주, 이지연 (2016). 부모화, 성인애착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만족 관련변인의 구조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23(1), 37-69.
-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19-935.
- 안수진 (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책임귀인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성범, 정미나, 성낙운, 강충명, 양은주 (2009).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 책임귀인이 연애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79-895.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만족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03(1), 294-295.
- 이경희, 이훈진 (2007).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질

- 과 대처양식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79-795.
- 이민식, 김중술 (1996). 부부관계 적응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 이성진, 조용래 (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지각된 통제감과 회피대처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장애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245-261.
- 이지혜 (2009). 부정응도식과 결혼만족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 (2002).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방식이 결혼생활 적응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춘미 (2009).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민 (2000).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 통합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현 (2009).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로서의 리더십코칭접근. 코칭연구 2(2), 69-82.
- 최미경, 조용래 (2005). 생활 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 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81-298.
- 통계청(2015), 2015년 혼인 이혼 통계. <http://www.kostat.go.kr>에서 2016년 4월 7일에 인출.
- 한덕웅, 박준호 (2005).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생각억제의 자기노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183-209.
- Aldwin, C. M., & Revenson, T. A. (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2), 337-348.
- Almeida, D. M., & Kessler, R. C. (1998). Everyday stressors and gender differences in daily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670-680.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Baranoff, J., Oei, T. P. S., Cho, S. H., & Kwon, S. M. (2006). Factor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in K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1), 133-14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com, D. H., Sayers, S. L., & Duhe, A. (1989). Attributional style and attributional patterns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4), 596-607.
- Bjorksten, O., & Stewart, T. J. (1984).

- Contemporary trends in American marriage. In C. Nadelson & D. C. Polonsky (Eds.), *Marriage and divorce: A contemporary perspective* (pp. 3-59), New York: Guilford Press.
- Bonanno, G. A. (2001). Emotion self-regulation.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pp. 251-285)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radbury, T. N., Beach, S. R. H., Fincham, F. D., & Nelson, G.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69-576.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7).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97-809.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adbury, T. N., & Karney, B. R. (1993).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interaction and dysfunction: Review and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15-27.
- Christensen, A., & Pasch, L. (1993). The sequence of marital conflict: An analysis of seven phases of marital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3-14.
- Cohan, C. L., & Bradbury, T. N. (1997). Negative life events and the longitudinal course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28.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9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r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Coyne, J. C., & Downey, G. (1991).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401-425.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eLongis, A., Coyne, J.,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The relationship of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 . .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44-854.
- Esther, C., Susana, C., & Ana, E. (2007).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Cognitive schemas as moderators and mediato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4), 791-804.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Fincham, F. D., Beach, S., & Nelson, G. (1987). Attribution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3. Causal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s for spous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1), 71-86.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2). Assessing attributions in marriage: The 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57-468.
- Freeman, N. (1998).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h.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Differences*, 30, 1311-1327.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Gurman, A. S., & Fraenkel, P. (2002). The history of couple therapy: A millennial review. *Family Process*, 41(2), 199-26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ahn, W. A.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4), 692-724.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6).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a). Coping and adaptation. In W. D. Gentry (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pp. 282-325).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b).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 Marsh, H. W., Kit-Tai, H., & Wen, Z. (2004).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latent interactions: Evaluation of alternative estimation strategies and indicator construction.

- Psychological Methods*, 9(3), 275- 300.
- Miller, G. E., & Bradbury, T. N. (1995). Ref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2), 196-208.
- Moos, R. H., & Holahan, C. J. (2003). Disposition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on coping: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12), 1387-1403.
- Moos, R. H., & Schaefer, J. A.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measure cri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212-230). New York, NY: MacMillan Free Press.
- Nemati, M. C. (1996). *A structur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Pierce, T., & Lydon, J. (1998). Priming relational schemas: Effects of contextually activated and chronically accessible interpersonal expectations on responses to a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441-1448.
- Racine, C. T. (2004). *Does religious coping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negative trait affect, collage adjustment, and alcohol use?*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fordham.bepress.com/dissertations/AAI315939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piner, G. B. (1979). The measurement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5(3), 288-300.
- Stevens, D., Charman, R., & Blair, R. J. (2001). Recognition of emotion i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2), 201-211.
- Stiles, O. E.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imacy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Tashiro, T., & Frazier. P. (2007). The casual effects of emotion on couples' cogni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409-422.
- Taylor, G. A., Bagby, R. M., & Parker, J. D. A. (1991). The alexithymia construct: A potential paradigm for psychosomatic medicine. *Psychosomatics*, 32(2), 153-164.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Thomson, J. B. (1990). Alcohol challenge with sons of alcoholics: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8(3), 383-402.
- Young, J. E. (1994). Young schema questionnaire,

-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63-76.
- Young, J. E., & Brown, G. (1990). *Young schema questionnaire*. New York, NY: Cognitive Therapy Center of New York.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NY: Guilford press.

1 차원고접수 : 2016. 04. 04.

수정원고접수 : 2016.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6. 06. 02.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Early Maladaptive Schema, Stress, Avoidance Coping, Emotional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Keel, Young-lan

Rark, Mi-ran

Lee, Jee-y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avoidance coping, emotional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aladaptive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Two competing structural model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 669 married couples. The first model hypothesized that stress in daily life reactivated early maladaptive schema.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model assumed that the former and the latter affected each other. Both of the models considered the early maladaptive schema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stress in daily life affected each other. However, they had more indirect than direct impacts on three key fa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most significantly avoidance coping, followed by emotional 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emotional regulation affected the female participant group more strongly than its male counterpart.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early maladaptive schema, stress, avoidance coping, emotional regulation, responsibility attribution, marital satisfaction.